

『內經拾遺方論』에 대한 研究

- 書誌學的 考察을 中心으로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生理學教室²

安宰永¹ · 趙學俊^{1*} · 金昊顯²

A Study on 『Naegyeongseupyubangron(內經拾遺方論)』

- focused on analysis of bibliographic investigation

Ahn Jae-young¹ · Jo Hak-jun^{1*} · Kim Ho-hyun²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²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e 『Naegyeongseupyubangron(內經拾遺方論)』, written by Nakyonggil(駱龍吉), is an ancient book of Bangron(方論). The exact time period of this book is unknown. To estimate its written time, we compared the contents of this book to other sources on the cause of diseases, the description of symptoms, the transmission of diseases, and treatment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book by comparing it to other books of Bangron(方論). As a result, we estimated the approximate time period that it was written and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medicine. We reached several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1. The approximate time period of 『Naegyeongseupyubangron(內經拾遺方論)』 is that of the Southern Song(南宋) dynasty of China, probably after 『Saminbang(三因方)』 between 1174 and 1279.

2. Nakyonggil(駱龍吉) was influenced by Wangbing(王冰), Sonsamak(孫思邈), Yuhagan(劉河間), Jinmutaek(陳無擇), and he influenced 『Uibanggo(醫方考)』.

3. The 『Naegyeongseupyubangron(內經拾遺方論)』 is the most comprehensive book among the books of Bangron(方論) because of its analysis of the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and its connection to the treatment of ancient diseases in Oriental Medical History.

Key Words : Naegyeongseupyubangron(內經拾遺方論), Nakyonggil(駱龍吉), Bangron(方論)

I. 緒論

宋代的 駱龍吉(낙용길)이 撰한 『內經拾遺方論』은 『內經』의 病證을 研究함에 있어서 古代的 病證의 要所를 把握하는데 重要的 價値가 있다고 認定될¹⁾ 뿐만 아니라, 劉河間の 『宣明方論』, 清代 羅美的 『古今名醫方論』과 함께 『三朝名醫方論』이라는 명칭으로

* 교신저자 : 趙學俊.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E-mail : johohun@kornet.net

Tel: 043-649-1347. Fax: 043-649-1702.

접수일(2009년 04월 25일), 수정일(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中國醫史學. 印刷所未詳. 1997. p.120.

묶여서 읽힐 정도로²⁾ 方劑學에서의 方論을 연구하는 중요한 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方論 專門書에 대한 연구는 『醫方集解』의 번역³⁾과 류호균이 『醫方集解』를 지은 汪昂의 醫學思想에 대한 연구⁴⁾, 『刪補名醫方論』에 대한 해석 연구⁵⁾ 등이 이루어져 있으나 『內經拾遺方論』의 方論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었다.

또한 『內經』의 病理學說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⁶⁾ 이루어져 왔으나 『內經』의 古代 病理學說을 전문적으로 다룬 『內經拾遺方論』에 대해 별다른 연구가 아직 없다.⁷⁾

뿐만 아니라 『內經拾遺方論』의 著者인 駱龍吉의 생애나 醫學思想, 『內經拾遺方論』의 著述時期조차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⁸⁾

이에 明代 劉浴德, 朱練이 增補한 『增補內經拾遺方論』⁹⁾ 4卷 중 駱龍吉이 저술한 卷1, 卷2를 분석하여 『內經拾遺方論』에 영향을 미친 醫家와 書籍, 方論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著述時期를 구체적으로 推定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本論

1. 駱龍吉의 『內經拾遺方論』의 著作時期

현재 『內經拾遺方論』의 原本은 전해지지 않고 또 한 駱龍吉의 生涯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明代 劉浴德, 朱練이 重訂하고 增補하여 만든 『增補內經拾遺方論』 卷1~4가 現在 전해지고 있다. 『增補內經拾遺方論』의 序文과 凡例에서 그 중 卷1과 2의 『內經拾遺方論』은 宋代 駱龍吉의 遺書¹⁰⁾라고 밝히고 있다.

『內經拾遺方論』의 構成을 살펴보면 『內經』(素問과 靈樞)의 古代病名을 62篇으로 編纂하여 각 篇마다 『內經』에 註釋을 달고 그에 따른 處方과 出典 및 用法을 제시하고 있다.

卷3과 4는 明代 劉浴德, 朱練이 駱龍吉의 뜻을 이어받아 같은 방식으로 駱龍吉 先生이 밝히지 못한 『內經』의 古代病名에 대해 註釋을 달고 處方과 出典 및 用法을 추가로 增補하였다.¹¹⁾

이에 卷1과 2에 言及된 『內經』의 句節, 釋義, 人名, 處方의 出典을 통해 『內經拾遺方論』의 著作時期를 아래와 같이 推定해 볼 수 있다.

1) 引用된 『內經』의 句節 및 釋義를 중심으로

引用된 『內經』 句節의 釋義는 王冰本을 參照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駱龍吉의 註釋을 살펴보면 第13篇 解體에서 ‘太僕’, 第57篇 鶩漚에서 ‘啓子’가 나오는데 모두 王冰을 指稱한다.

그러나 引用된 『內經』의 句節들은 宋代 校正醫書

2) 宋駱龍吉撰, 金劉完素撰, 清羅美編, 郝恩恩主編. 三朝名醫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3) 清汪昂著, 蔡仁植, 孟華燮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2.

4) 류호균. 汪昂의 著書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5)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血 처방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3).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卷一의 補氣血安神 처방 8首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李南九,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升陽 처방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6) 최승훈. 내경병리학. 서울. 통나무. 1999.

7) 국내학술정보서비스(KERIS)와 중국논문검색서비스에서 『內經拾遺方論』에 관한 연구물이 없었음.

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勳,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2, p.35.

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勳,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5. “宋代 駱龍吉 先生의 內經拾遺方論을 明代의 劉浴德, 朱練이 88種의 病을 續補했는데, 文體는 비슷하며, 4卷으로 合編하였다. 現在 1957年 上海衛生出版社의 印刷本이 있음.”

10) 曹炳章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 “內經拾遺方論者, 宋駱先生龍吉之遺書也.”, p.123. “內經拾遺方論, 宋駱龍吉所撰也.”

11) 駱龍吉 先生이 編纂한 62篇은 內經의 篇目으로 順序를 정하였으나 明代 劉浴德이 宣明論을 參照하여 病名으로 順序를 정하여 再編輯하였다.

局에서 만든 王冰本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예로 第43篇 着痺에서 ‘著’이 ‘着’으로, 第61篇 控牽에서 ‘少腹’, ‘腰脊’이 ‘少腹疼痛’, ‘腰痛脊痛’으로 되어 있다. 또 第32篇 瘡疥에서 王冰本の ‘瘡俳’가 ‘瘡疥’로 되어 있어 이는 『太素』와 일치한다.

이점에서 宋代 校正醫書局에서 만든 王冰本과는 다른 版本을 參照한 것으로 보인다.

『內經拾遺方論』에는 孫思邈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예로 第31篇 欬逆에서 ‘孫真人’과 第37篇 首風, 第39篇 漏風, 第40篇 胃風에서 ‘藥上真人’¹²⁾을 들 수 있다.

또 二陽病 第6에서 ‘靑田老人’이라는 文句가 나오는데 陳無擇¹³⁾이 靑田人이므로 陳無擇으로 推定된다.

한편 第48篇 筋痿에서 戴復庵이 言及되어 있는데 戴復庵은 明代의 사람이므로 이는 劉浴德이 重訂한 것으로 보인다.

『內經拾遺方論』의 釋義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王冰, 孫思邈, 陳無擇이고 『內經拾遺方論』의 釋義는 駱龍吉 活動時期보다 뒤에 나올 수 없으므로 『內經拾遺方論』의 著述時期는 陳無擇 以後로 推定된다.

2) 引用된 人物, 處方, 出典을 中心으로

『內經拾遺方論』의 著述時期를 推定하는데 있어 重要的 端緒가 바로 이 책에서 인용된 書籍이다. 대표적 引用書籍은 바로 劉河間의 『宣明論方』과 陳無擇의 『三因方』이다.

『宣明論方』은 『內經拾遺方論』과 똑같은 方式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內經拾遺方論』中 第8篇 一陰의 遠志散, 第9篇 結陽의 犀角散, 第15篇 蠱病의 大建中湯, 第16篇 瘦病의 建中加減湯, 第29篇 鼓脹의 鷄矢

醴, 第30篇 血枯의 烏賊骨丸, 第38篇 目風眼寒의 石膏散, 第40篇 胃風의 胃風湯, 第44篇 周痺의 大豆藜散, 第45篇 胞痺의 腎着湯, 第49篇 胃脘癰의 射干湯, 第58篇 三焦約의 荊黃湯(一名 倒換散), 第59篇 胃寒腸熱의 妙應丸, 第60篇 胃熱腸寒의 靑橘皮丸이 『宣明論方』에 있는 處方과 一致한다.

특히 第15篇 蠱病의 大建中湯, 第16篇 瘦病의 建中加減湯, 第45篇 胞痺의 腎着湯은 『內經拾遺方論』에서 駱龍吉이 지은 處方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腎着湯은 『金匱要略』에서 처음으로 言及되어 있고¹⁴⁾ 『金匱要略』의 腎着湯과 『內經拾遺方論』의 腎着湯은 차이가 없기에, 『內經拾遺方論』의 腎着湯을 駱龍吉의 處方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이는 劉浴德의 個人的 見解일 수 있기 때문이다.

腎着湯을 駱龍吉의 處方으로 볼 수 없기에 大建中湯과 建中加減湯도 駱龍吉의 處方이라 단정할 수가 없다.

또 病因病機의 構成 및 註釋을 살펴 볼 때 『內經拾遺方論』이 『宣明論方』보다 더욱 詳細히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宣明論方』보다 後代의 書籍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한편 言及된 書籍 中에 『三因方』도 많이 보이는데, 그 예로 第31篇 欬逆, 第35篇 腦風의 三五七散, 第40篇 胃風의 胃風湯, 第42篇 痛痺의 烏頭湯, 第45篇 胞痺의 腎着湯, 第50篇 陽厥의 溫膽湯, 第62篇 瘡疔의 倉卒散 등을 들 수 있다.

第31篇은 欬逆을 다루는 내용인데 駱龍吉은 孫思邈의 意見을 引用해 欬逆은 딸꾹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또한 『三因方』卷十一 嘔逆論證에도 咳(欬)逆을 딸꾹질로 정의내리고 있고 文章의 흐름이 유사하다.¹⁵⁾ 『三因方』중 婦人產後 咳逆에도 사용되

12) 孫思邈을 指稱한다. 『名醫類証醫書大會』에서 “藥上真人 孫思邈…永徽三年(652年)二月十五日, 晨起沐浴, 儼其衣冠, 端坐而化”라는 문장이 있다. 『名醫類証醫書大會』는 24卷으로 구성되어 있고 明代 態宗立이 1565년에 撰함.

1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勣,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0. “陳言은 字가 無擇이고 靑田人이다. 南宋 紹興·淳熙(1131~1189年)의 사람인데, 生涯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著書로는 『三因極一病證放論』이 있고 1174년에 撰함.”

14) 張仲景 著. 裘沛然 編. 金匱要略.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腎着之病, 其人身體重, 腰中冷, 如坐水中, 形如水狀, 反不渴, 小便自利, 飲食如故, 病屬下焦. 身勞汗出, 衣裏冷濕, 久久得之. 腰以下冷痛, 腹重如帶五天錢, 甘薑苓朮湯主之. 甘草乾薑茯苓白朮湯方. 甘草 白朮(各二兩) 乾薑 茯苓(各四兩) 上四味, 以水五升, 煮取三升, 分溫三服, 腰中即溫.”

15) 陳無擇 著. 王象輔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7. “嘔者, 咳逆也. 古方則謂之嘔. 凡吐利後, 多作嘔. 大率胃實即嘔, 胃虛則嘔, 此由胃中虛, 膈

는 處方이 있으며, 『內經拾遺方論』에도 婦人産後를 言及한 것으로 보아 『內經拾遺方論』은 『三因方』의 영향을 받은 後代의 책이라 볼 수 있겠다.

그 뒷받침의 예로 第50篇 陽厥의 溫膽湯을 들 수 있다. 溫膽湯은 孫思邈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서¹⁶⁾ 후에 陳無擇에 의해 약간 가감되어 사용되고 있다.¹⁷⁾ 『內經拾遺方論』의 溫膽湯은 陳無擇의 溫膽湯과 비슷하므로 駱龍吉은 陳無擇의 直接的인 影響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第6篇 二陽病의 註釋에 ‘靑田老人’을 陳無擇으로 推定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많이 言及된 書籍은 『和劑局方』¹⁸⁾, 『聖濟總錄』¹⁹⁾

上熱，故噦。或至八九聲相連，收氣不回，至于惊人者。若傷寒久病，得此甚惡。”

16) 孫思邈 著. 裘沛然 編. 備急千金要方.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溫膽湯治大病後虛煩不得眠，此胆寒故也，宜服之方。半夏 竹茹 枳實 各二兩 橘皮 三兩 甘草 一兩 生薑 四兩 上六味咀，以水八升煮取二升，分三服。”

17) ①陳無擇 著. 王象補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90. “肝膽經虛實寒熱證治 治膽虛寒，眩厥足痿，指不能搖，不能起，僵仆，目黃失精，虛勞煩擾，因驚膽怯，奔氣在胸，喘滿浮腫，不睡。半夏(湯洗去滑) 麥門冬(去心，各一兩半) 茯苓(二兩) 酸棗仁(三兩，炒) 甘草(炙) 桂心 遠志(去心，姜汁合炒) 黃芩 草人參(各一兩) 上爲銼散。每服四大錢，用長流水一斗，糯米煮，如瀉膽湯法。一方，見虛煩門。” ②陳無擇 著. 王象補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5. “虛煩證治 治大病後虛煩不得眠，此膽寒故也，此藥主之。又治驚悸。半夏(湯洗七次) 竹茹 枳實(麩炒，去瓢，各二兩) 陳皮(三兩) 甘草(一兩，炙) 茯苓(一兩半) 上爲銼散。每服四大錢，水一盞半，薑五片，棗一枚，煎七分，去滓，食前服。” ③陳無擇 著. 王象補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21. “驚悸證治 治心膽虛怯，觸事易驚，或夢寐不祥，或異惑，遂致心驚膽擾，氣鬱生涎，涎與氣搏，變生諸証，或短氣悸乏，或復自汗，四肢浮腫，飲食無味，心虛煩悶，坐卧不安。半夏(湯洗七次) 竹茹 枳實(麩炒去瓢，各二兩) 橘皮(三兩，去白) 甘草(炙，一兩) 白茯苓(一兩半) 上爲銼散。每服四大錢，水一盞半，薑五片，棗一個，煎七分，去滓，食前服。”

1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勳,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20-321. “方書名. 一名 『和劑局方』 이라 함. 10卷. 宋代 太醫局의 編으로, 1078年 以後에 初刊됨. 本書는 宋代 太醫局所屬 藥局의 일종의 製劑藥處方集이다. 宋代에 여러 차례 增補 修訂 刊行됨에 따라 書名과 卷數도 여러 차례 調整되었다. 最初의 書名은 『太醫局方』이다. 1107年 前後에 陳師文 등이 다시 修訂하고 또 前後해서 改名한 것이 『和劑局方』과 『太平惠民和劑局方』이

인데, 『和劑局方』과 『聖濟總錄』은 『宣明論方』과 『三因方』 以前의 書籍들이다.

凡例와 序文에 의해 駱龍吉의 著作이라고 보이는 내용 중에 引用된 書籍들을 선택하여 撰年이 분명한 것들을 中心으로 北宋(960年~1127年)에서 南宋(1127年~1279年)까지 時代順으로 나열해보면 1107年~1110年 陳師文의 『和劑局方』, 1111~1117年 『聖濟總錄』, 1119年 『小兒藥證直訣』, 1170年 『洪氏集驗方』, 1172年 『宣明論方』, 1174年 『三因方』, 1178年 『楊氏家藏方』, 1186年 『素問病機宜保命集』, 1196年 『是齊百一選方』, 1227年 『魏氏家藏方』, 1236年 『陰證略例』, 1251年 『脾胃論』, 1253年 『濟生方』 등이 있다. 南宋 以後의 書籍들은 明代 劉浴德이 增補한 것으로 보이므로 時代推定에서 큰 의의가 없다고 본다.

이상에서 종합해 볼 때, 『內經拾遺方論』의 著作時期는 대체로 南宋이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三因方』 以後 즉 1174年에서 1279年(南宋의 멸망)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駱龍吉이 著述한 『內經拾遺方論』 자체가 원형 그대로 현재 전해지지 않고 明代 劉浴德, 朱鍊이 重訂한 『增補內經拾遺方論』의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시대 推定에는 한계가 있다.

2. 『內經拾遺方論』과 연관이 있는 人物과 書籍

歷代로 『內經』에 註釋을 달은 醫家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人物이 唐代의 醫家 王冰이다. 宋代의 醫家들은 王冰의 註釋을 대체로 따랐는데 역시 駱龍吉도 王冰의 영향을 받았으며 『內經拾遺方論』의 本文을 살펴보면 王冰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다.”

1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勳,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3. “方書名. 또는 『政和聖濟總錄』이라고도 함. 200卷. 宋代 徽宗시에 朝廷에서 人員을 組織하여 編撰함. 1111~1117年(政和年間)에 刊行된 후, 金代 大定年間, 元代 大德年間(『大德重校聖濟總錄』이라 名함)의 兩次に 걸쳐 重刊됨. 內容은 歷代醫籍을 採輯하고, 아울러 民間良方 및 醫家의 獻方을 徵集하여 整理 滙編한 것임.”

그 예는 第13篇 解休, 第57篇 驚漉을 비롯한 대다수의 篇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駱龍吉의 독특한 觀點을 살펴볼 수 있는데 第1篇 煎厥, 第4篇 殭泄, 第6篇 二陽病, 第31篇 欬逆 等이다.

第1篇 煎厥에서 ‘張’字의 解釋이 特徵이다. 歷代註家들은 ‘張’字의 解釋을 ‘亢盛’의 意味로 풀었지만²⁰⁾ 駱龍吉은 ‘늘어지다’의 意味로 풀었다.²¹⁾ 第4篇 殭泄에서 歷代註家들은 淸陽이 주로 상승하나 陽이 아래에서 쇠잔하여 올라가지 못하는²²⁾ 寒泄로 보고 있으나, 駱龍吉은 淸陽이 상승하지 못하여 뜨거운 기운이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흘러 통하는 熱泄로 보고 있다.²³⁾ 第6篇 二陽病에서 歷代註家들은 心脾病으로 認識하였으나²⁴⁾, 駱龍吉은 肺脾病으로 認識하였다.²⁵⁾ 第31篇 欬逆에서 歷代註家들은 咳嗽의 病으로 인식하였는데²⁶⁾ 駱龍吉은 딸국질(噦)로 인식하였다. 이를 살펴볼 때 古代에 欬와 噦를 구별해 쓴 점을 알 수 있으며, 古代病名 研究의 중요한 史料的 價値가 있다고 본다.

駱龍吉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孫思邈이다. 本文에서 孫思邈(孫眞人, 藥上眞人)이 言及되어 있다. 그 예는 第22篇 涌水, 第24篇 口糜, 第31篇 欬逆, 第36篇 腦風, 第37篇 首風, 第39篇 漏風, 第40

篇 胃風에서 살펴볼 수 있다. 第22篇 涌水에서 『千金方』의 麥門冬飲이 水腫을 다스리는 處方이므로²⁷⁾ 駱龍吉은 涌水의 증상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水腫임을 알고 있었으며, 第24篇 口糜에서 口瘡 치료법에 관한 내용을 『千金方』의 文章을 引用하였다. 第31篇 欬逆에서 孫思邈의 의견을 반영하여 欬逆을 딸국질(噦)로 認識하였고, 第36篇 腦風, 第37篇 首風, 第39篇 漏風, 第40篇 胃風은 『素問·風論』에 있는 내용이고 『千金方』의 文章을 그대로 註釋에 옮겨놓았다. 따라서 風에 관한 觀點은 孫思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醫家도 駱龍吉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劉河間과 陳無擇이 대표적이다.

劉河間の 宣明論方과 비교해볼 때, 『內經拾遺方論』 중 第8篇 一陰의 遠志散, 第9篇 結陽의 犀角散, 第15篇 蠱病의 大建中湯, 第16篇 瘦病의 建中加減湯, 第29篇 鼓脹의 鷄矢醴, 第30篇 血枯의 烏賊骨丸, 第38篇 目風眼寒의 石膏散, 第40篇 胃風의 胃風湯, 第44篇 周痺의 大豆蘗散, 第45篇 胞痺의 腎着湯, 第49篇 胃脘癰의 射干湯, 第58篇 三焦約의 荊黃湯(一名 倒換散), 第59篇 胃寒腸熱의 妙應丸, 第60篇 胃熱腸寒의 青橘皮丸은 『宣明論方』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陳無擇의 『三因方』과 비교해볼 때, 『內經拾遺方論』 중 第31篇 欬逆에서 駱龍吉은 欬逆을 딸국질로 인식하고 있고 『三因方』에서도 咳(欬)逆의 病을 딸국질로 인식하고 있으며, 『內經拾遺方論』에서 欬逆에 대한 處方과 『三因方』에서 咳逆에 대한 處方은 거의 일치한다. 또 『內經拾遺方論』 중 第35篇 腦風의 三五七散, 第40篇 胃風의 胃風湯, 第42篇 痛痺의 烏頭湯, 第45篇 胞痺의 腎着湯, 第50篇 陽厥의 溫膽湯, 第62篇 癩疔의 倉卒散도 『三因方』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宣明論方』과 『三因方』에 收錄된 많은 處方들이 『內經拾遺方論』에 收錄된 處方들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므로 劉河間과 陳無擇은 駱龍吉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0)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集成. 金星印刷社. 2001. pp.99-100. “王馬吳景岳張高丹黃白話解는 陽氣가 淸淨하지 못하여 神氣가 밖으로 뜨고 精氣가 枯渴되는 것”, “姚는 陽氣가 외부로 흩어져 神氣가 疲弊되어 精氣가 枯渴되는 것”

21) 煩數房勞 則身體弛張懈墮

22)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集成. 金星印刷社. 2001. p.178.

23) 今淸氣反在於下 則有降無升 熱則流通 傳送失職

24)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集成. 金星印刷社. 2001. p.254. “○白話解: 二陽之病은 發心痺라 ○今釋: 二陽之病은 發心痺라. ○王: 夫腸胃發病은 心脾受之라. ○馬: 二陽之病은 由心脾所發耳라 ○景岳: 二陽之病은 所以發於心脾也라 ○張: 二陽之病은 本於二陽而 發於心脾也라 ○高: 今病發心脾라.”

25) 心脾 靑田老人當作肺脾 引證下文 風消者 脾病 息賁者肺病 深爲有理

26) 李慶雨 翻譯. 解釋編注黃帝內經素問2. 서울. 麗江出版社. 2000. p.535. 吳眞은 “소리나는 것을 일러 ‘欬’라 하며 연달아 소리나는 것을 일러 ‘嗽’라 한다. ‘嗽’를 말하지 않은 것은 글을 생략한 것이다.”

27) 孫思邈 著. 裘沛然 編. 備急千金要方.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卷二十一 消渴淋閉方 水腫第四 麥門冬 二十五枚 米 二十五粒 上二味以水一升, 和煮米熟, 去滓, 下前丸藥, 逐日服用用之.”

한편 『內經拾遺方論』이 後代에 영향을 주었는데, 元代의 醫家 滑壽와 明代의 方論書籍인 『醫方考』이다.

第6篇 二陽病에서 ‘靑田老人’의 관한 文章은 元代의 醫家 滑壽²⁸⁾의 『讀素問鈔』에서도 같은 文章이 똑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²⁹⁾ 駱龍吉은 滑壽에게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內經拾遺方論』에 수록된 많은 處方들이 明代의 『醫方考』³⁰⁾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病因病機와 主治가 같거나 비슷하다. 그 예로 第1篇 煎厥의 人參固本丸, 第4篇 癘泄의 戊己丸, 第14篇 胃疽의 調胃承氣湯, 第22篇 涌水の 麥門冬飲, 第24篇 口糜의 薔薇煎, 第27篇 鼻淵의 蒼耳散, 第41篇 行痺의 蠲痺湯, 第46篇 腸痺의 胃苓湯, 第47篇 熱痺의 桑枝煎, 第56篇 濡瀉의 升陽除濕湯, 第58篇 三焦約의 荊黃湯 등을 들 수 있다. 이로써 『內經拾遺方論』은 『醫方考』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以上에서 설명한 내용을 綜合해보면, 駱龍吉은 唐代의 醫家인 王冰과 孫思邈, 金代의 醫家인 劉河間, 南宋代의 醫家인 陳無擇의 영향을 받고 後代로 元代의 醫家인 滑壽와 明代의 方論書籍인 『醫方考』에 영향을 준 훌륭한 內經研究家이고 臨床家이다.

3. 『內經拾遺方論』의 構成

方論이란 處方 중 藥物에 대하여 특히 陰陽·氣化·形色氣味 등의 理論을 運用하여 方理를 說明한 것을

2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勤,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40-341. “滑壽(14세기) 元代의 著名한 醫學家. 字는 伯仁, 晚號는 攬寧生. 原籍은 襄城(지금의 河南 襄城)인데, 후에 儀眞(지금의 江蘇에 속함)과 余姚(지금의 浙江에 속함)로 移居함. 『讀素問鈔』, 『難經本義』, 『診家要』, 『十四經發揮』 등을 著作함.”

29) 滑壽 著. 李玉清 等主編. 滑壽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2. “心脾靑田老人謂當作肺脾引證下文風消者脾病息責者肺病深爲有理”

3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勤,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9. “醫方書이며 卷4로 구성됨. 明代 吳崑 지음. 1584년에 刊行됨. 歷代 常用醫方 700여방이 수록.”

말한다. 체계가 갖추어진 方論 서적은, 處方の 아래에 主治를 論述하고 後에는 藥物과 加減을 列舉하였으며, 諸家들의 各論을 處方 後에 열거하고 사이사이에 자신의 評論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經拾遺方論』을 살펴보면 모두 62篇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 중 素問이 57篇이며 靈樞가 5篇이다. 凡例에 의하면 駱龍吉이 著述한 『內經拾遺方論』은 본래 內經篇目的 順序대로 정해져 있었으나 明代 劉浴德이 宣明論方을 參照하여 病症의 順序대로 再編集하고 病症 옆에 病因을 간략하게 적어놓았다고 한다.

駱龍吉은 『內經』의 原文을 부분적으로 引用하였는데, 劉浴德이 增補할 때 『素問』의 內容은 해당 篇名만을 『靈樞』의 內容은 靈樞라는 두 글자와 함께 해당 篇名을 적어놓았다.

內經의 句節 뒤에 바로 註釋을 달았는데 ‘夫’字以後로 나온 文章이 駱龍吉의 註釋이다. 그러나 第32篇 瘡辨의 註釋에서 明代 醫家인 戴復庵이라는 이름이 나오므로 註釋 역시 劉浴德이 重訂을 가한 흔적이 보인다.

各 篇마다 處方을 記述해 놓았는데 處方의 대부분은 出典을 밝혀놓고 있다. 그 예로 第4篇 癘泄에서 調中益氣湯의 出典을 『脾胃論』으로 밝혀놓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出典을 밝혀 놓지 않은 處方도 있는데 그 예로 第4篇 癘泄의 戊己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言及된 出典이 宋代 以後 書籍들이 많이 보이며 그 예로 第23篇 鬲消에서 三和甘露飲의 出典을 明代의 『醫方選要』³¹⁾로 밝혀놓은 점을 들 수 있다.

또 모든 處方들의 出典을 다 밝혀 놓지 않은 점으로 볼 때, 駱龍吉의 『內經拾遺方論』에는 본래 出典이 밝혀 있지 않았으나 後에 劉浴德, 朱練이 重訂한 것으로 추측한다.

各 處方마다 대개 處方名의 理由와 由來가 적혀있는데 그 예로 第6篇 二陽病에서 愚魯湯의 由來와 逍遙散의 理由를 밝혀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處方의 理由와 由來 역시 모두 駱龍吉의 글로 볼 수

3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勤,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9. “方書名. 10卷이며 明代 周文采(1488~1505年)가 撰함. 1495년에 刊行.”

없는데, 그 예로 第54篇 脾痺의 蘭草湯의 해설 중 元代 醫家인 ‘丹溪’가 언급되어 있다. 丹溪는 駱龍吉보다 後代 사람이므로 蘭草湯의 해설에 明代 劉浴德, 朱練이 重訂한 흔적이 보인다.

處方 밑에 바로 主治를 記述해 놓았고 마지막으로 用法을 적어놓았다. 여러 書籍에 쓰여 있는 處方들과 『內經拾遺方論』에 쓰여 있는 處方들을 비교해 볼 때, 處方の 構成, 用量 및 用法이 일치한 것들이 많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었다. 그 예로 『內經拾遺方論』 중 第15篇 蠱病의 大建中湯³²⁾과 『宣明論方』의 大建中湯³³⁾을 비교해 보면 處方の 構成, 用量 및 用法이 일치하였고, 『內經拾遺方論』 중 第50篇 厥逆의 如聖餅子³⁴⁾와 『和劑局方』의 如聖餅子³⁵⁾를 비교해 보면 主治는 비슷하였지만 藥의 構成의 차이가 있었다.

이점에서 駱龍吉은 病症에 맞게 處方の 원형을 그대로 사용했거나 적절히 加減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內經拾遺方論』에는 方解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內經拾遺方論』과 전문적 方論書籍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전문적 方論書籍의 예로 『醫方考』와 『醫方集解』를 들 수가 있다.

『醫方考』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³⁶⁾

책에 수록된 方劑는 證候에 따라서 72門으로 분류하였고 每一證마다 病因을 먼저 기술하고 諸家治法을 쓴 후에 名方을 匯集하였다. 이 책의 우수한 점은 方劑의 名名, 藥味造成, 方的 方效, 適應症, 加減應用, 禁忌 등에 대하여 論述한 것으로 조리가 분명하여 참고가치가 비교적 높다. 단점은 前人들의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여 속이는 부분이 있으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을 섞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록한 方劑가 광범위하지 않고 빠진 것이 많다.

한편 『醫方集解』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³⁷⁾

1) 수록한 方劑는 치료작용에 따라 補養, 發表, 涌吐, 攻裏, 和解, 理氣, 理血, 祛風, 祛寒, 清暑, 利濕, 瀉火, 除痰, 消痰, 收澁, 殺蟲, 明目, 癰瘍, 經產 21門으로 나누었고 끝에는 救急良方을 덧붙였다. 每文의 첫머리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다음에 每方的 適應症, 藥物構成, 方義集解, 附方加減 등을 차례대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處方을 쓸 때의 病原, 脈候, 臟腑, 經絡, 藥性, 服法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醫方的 수집이 비교적 완비되었고 실용과 부합되었다. 과거의 病이나 證에 따른 분류를 따르지 않고 公用分類法을 사용하였다.

2) 方劑를 正方과 附方으로 나누어 正方은 앞에 두고 附方은 후에 두어서 읽기에 편하게 하였다. 前人들의 用藥加減法을 분석 및 소개하고 方劑의 原流와 發展상황을 설명하여 후세의 方劑學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3) 臟腑와 결합시켜 論을 세우고 각각 논술을 종합하고 요약하였으며 문체가 용이하였다.

4) 수록된 方과 前人들의 方論에 모두 出處를 糾明하였다. 작자는 자신의 견해를 “昂按”으로 나타내었다.

위에서 정리한 『內經拾遺方論』의 특징과 『醫方考』 및 『醫方集解』의 특징을 비교해볼 때, 『內經拾遺方論』이 『醫方考』나 『醫方集解』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宋代의 病因病機와 本草學이 한계가 있

32) 大建中湯[駱龍吉] (建立也. 中脾也. 澁而出白液 乃脾風傳腎所致 故 建立脾土耳. 大者 言其力之大也.) 治便溺失精. 黃耆 遠志 當歸 澤瀉 各三兩 人參 甘草 龍骨 白芍藥 各二兩 右爲末, 每服三錢. 水一盞, 生薑五片, 紅棗二枚, 煎至八分, 去渣 隨時溫服.

33) 劉完素 著.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出版社. 2006. p.13. “『左傳』云: 惑以喪志, 名爲蠱, 乃真精不守也. 大建中湯 主之: 治蠱病, 小腹急痛, 便溺失精, 澁而出白液. 黃芪 遠志 去心 當歸 澤瀉 各三兩 芍藥 人參 龍骨 甘草 炙. 各一兩 上爲末, 每服三錢, 水一盞, 生薑五片, 煎至八分, 去滓, 溫服, 不計時候.”

34) 頭痛因寒 用之立止. 蒼朮(酒浸) 四兩 川芎 白芷 各二兩 甘草 一量(薑汁炒) 右各爲細末, 酒糊爲餅, 如小圍棋子大. 每服七餅, 用細茶一撮, 嚼爛, 茶清早送下. 服後 一日不可見風.

35) 陳師文 著. 裘沛然 編. 太平惠民和劑局方.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如聖餅子 治男子, 婦人氣厥, 上盛下虛, 痰飲風寒, 伏留陽經, 偏正頭疼, 痛連腦巔 目眩耳聾. 常服清頭目, 消風化痰, 暖胃. 防風 天麻 半夏(生, 各半兩) 天南星(洗) 乾薑 川烏(去皮, 尖, 各一兩) 川芎 上爲細末, 湯浸蒸餅和丸, 如雞頭大, 捻作餅子曝乾. 每服五餅, 同荊芥三, 五穗細嚼 茶, 酒任下, 熟水亦得, 不拘時候.”

36)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中國醫學史. 印刷所未詳. 1997. pp.596-597.

37)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中國醫學史. 印刷所未詳. 1997. pp.597-598.

기 때문에, 方解가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해보면 『內經拾遺方論』은 비록 『醫方考』나 『醫方集解』처럼 處方 내의 약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內經』의 古代病症에 적합한 處方을 연결한 초기의 方論書籍이며, 아울러 處方名의 이유, 由來, 主治 및 用法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方論을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III. 結論

『增補內經拾遺方論』 중 駱龍吉이 저술한 卷1과 卷2를 書誌學的 特徵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內經』의 句節과 人名, 處方, 出典 등을 根據로 『內經拾遺方論』의 著作時期를 추정하자면, 폭넓게는 南宋時代, 좁게는 『三因方』 著述時期 以後 즉 1174년에서 1279년(南宋의 멸망)까지로 볼 수 있다. 駱龍吉이 著述한 『內經拾遺方論』 자체가 원형 그대로 현재 전해지지 않고 明代 劉浴德, 朱練이 重訂한 『增補內經拾遺方論』의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시대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2. 『內經拾遺方論』은 『內經』의 注釋 면에서 唐代의 醫家인 王冰과 孫思邈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方論 면에서 金代의 醫家인 劉河間, 南宋代의 醫家인 陳無擇의 영향을 받았으며, 明代의 方論書籍인 『醫方考』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3. 『內經拾遺方論』은 비록 『醫方考』나 『醫方集解』처럼 處方 내의 약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內經』의 古代病症에 적합한 處方을 연결한 초기의 方論書籍이며, 아울러 處方名의 이유, 由來, 主治 및 用法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方論을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參考文獻

<논문>

1. 류호균. 汪昂의 著書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2.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處방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3.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陰 血 處방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3).
4.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 卷一의 補氣血安神 處방 8首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5. 李南九, 金成煥, 李容範.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升陽處방에 대한 번역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단행본>

1. 曹炳章 著.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 123.
2. 李慶雨 譯. 解釋編注黃帝內經素問2. 서울. 麗江出版社. 2000. p.535.
3. 素問集成刊行研究會. 素問集成. 金星印刷社. 2001. p.178, 254. pp.99-100.
4. 劉完素 著.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出版社. 2006. p.13.
5. 陳無擇 著. 王象補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90, 105, 121, 137.
6. 滑壽 著. 李玉清 等主編. 滑壽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2.
7.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洪元植, 金勳, 朴贊國, 李錦浚, 表天根).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 35, 123, 219, 300. pp.320-321, 340-341.
8.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中國醫學史. 印刷所 未詳. 1997. p.120. pp.596-597, 597-598.
9. 宋駱龍吉 撰, 金劉完素 撰, 清羅美 編, 郝恩恩

- 主編. 三朝名醫方論. 中醫古籍出版社. 2001.
10. 清·汪昂 著. 蔡仁植, 孟華曼 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1. 최승훈. 내경병리학. 서울. 통나무. 1999.

<기타>

1. 裘沛然 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金匱要略.
2. 裘沛然 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備急千金要方.
3. 裘沛然 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出版社. 2006. 太平惠民和劑局方.

